



# 성보화학(주) 제1공장

## ‘풍요로운 농촌’ 실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

반세기 농약 역사 이곳서 빛나, ‘정직·성실’로 우수제품 공급  
‘숙련된 생산자·일사불란한 움직임’이 강점, 목표대비 105% 달성

**현** 재 화학적 합성농약의 규제관리가 여러 화학물질그룹 중 가장 앞선다는 전문가의 진단에 힘이 생긴다. 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과도한 선호가 반드시 유리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독 작물보호제인 농약에 대해 좀처럼 관용을 보이려 하지 않는 소비자의 경각심이 유리한 방향으로 굴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해 들어 정밀화학제품인 농약의 선진 제조 과정 및 현장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농약 및 제조환경,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과 선입견을 해소코자 마련한 다섯 번째의 장(場). 시원하게 뺀 자유로와 인접하고 있어 전국 어디라도 신속한 제품전달이 가능하며 한창 IT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과주산업단지를 배후에 두고 있어 지속적인 개발여건이 확보되

어 있는 성보화학(주) 제1공장(공장장 吳星煥)을 찾았다.

### 4개부·45생산인, 우수제품 공급 매진

“어느새 포식의 시대를 맞은 우리사회는 먹거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 분야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안전 및 건강,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높은 관심은 우리 농약업계에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유기농, 무농약 등 친환경적분위기에 편승하여 농약의 순기능이 많이 탈색되어 가는 한편 대부분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마스크의 반대내지는 비판적 의견으로 농약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현실임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보화학의 반세기 농약



역사를 웅변하는 듯한 생산현장의 조타수 역할을 하고 있는 뚝공장장은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전하며 이같이 말하고 “그럼에도 농약은 세계 인구증가에 따른 농작물의 수량증진이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필수 불가결한 농업자재일 수밖에 없다”며 자신한다.

1968년 약 2만4천여평에 이르는 현재의 부지에 신축,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지역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제1공장은 지역민과의 지속적인 유대 및 홍보로 농약생산에 따른 민원 없이 생산 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용역인원 상당수가 지역민으로서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성보는 61년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공업화와 식량증산이라는 기치 아래 설립되었고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다이아진은 원제를 자체의 기술로 생산하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최고의 기술을 통해 입·수화·분제 등의 제형을 연구, 생산하여 찬사를 한 몸에 받았으며 원제 생산기술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기업을 토하기도 했다.

1977년 농약원제를 수출하기 시작하여 1984년에는 4백만 불을 달성하고 1991년도에는 5백만 불 수출로 무역의 날에 100만 불탑도 수상했으며 2000년도에는 6백만 불에 달했다. 생산부와 관리부, 생산제품 품질관리 담당인 화학실험실, 제품의 개발 및 적용확대 실험 담당인 생물연구실 등 4개부서에서 총 45명이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 ‘정직·성실’로 소비자 사랑 듬뿍

농약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 뚝공장장은 “길거리에서 유아무야 마시는 화학물질에 비하면 안전하기 그지없다”며 일축한다. 그리고는 타 공장과의 차별화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다소 엉뚱하게도 “정직으로 압축할 수 있다”며 의미를 설명한다. 생산자 스스로 거짓이 없이 제품을 만들어 준다는 철학이 있단다. 제품 용량이 1g 혹은 1ml라도 부족하게 되면 즉시 전량을 재 포장하고,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농민들에게 부족한,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보급하지 않겠다는 신념의 발로란다. 뚝공장장은 그러면서도 “최근 소비자 수준이 더욱 높아지는데다 규제는 점점 까다롭고 세밀하며 특히 한강유역에 근접해 있어서 더욱 많은 비용의 투입이 요구되는 현실”이라며 애로를 살짝 드러낸 뒤 “그럼에도 농민과 약속한 우수 약제의 생산,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제조 종사자를 위한 환경 및 안전시설에 대해 뚝공장장은 “생산부서 근로자의 평균 근무 경력이 15년 이상”이라면서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인화단결이 안된다면 이 같은 근무이력은 불가능 할 것”이라며 설명을 이어간다. 생산 가이드라인 및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의해 생산, 관리되며 작업장 하나 하나에 안전 및 소방시설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활성탄 대기 배출시설을 통해서만 대기 중으로 공기가 방출되며 인화성 용제를

취급하는 유·액체 혼합설비에는 스파크나 마찰열, 정전기로 인한 폭발 및 화재예방을 위해 모든 설비를 방폭설비로 구성되어 있고 완벽한 전류접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복지시설로는 헬스장, 탁구장, 테니스장이 있으며 마스크 없는 작업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끝으로 뚝공장장은 소비자에 대해 “농약생산

의 근본 목적이자 목표는 농민에게는 보다 나은 수확의 기쁨을, 주부들에게는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안전농산물 제공에 있다”면서 “모두가 우리의 가족이라는 정보인의 성실함과 정직이 소비자에게 사랑받아 온 이유”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항상 앙불괴천(仰不愧天)의 모습으로 소비자에게 다가 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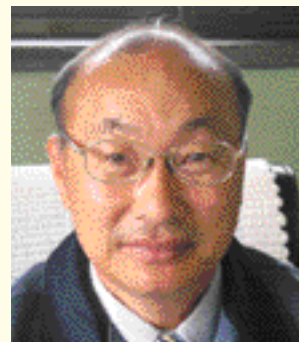


미니 인터뷰

吳星煥 공장장

■ 비교적 소규모 회사입니다만, 내실 있다는 평을 듣는데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성보화학은 정년을 보장하는 평생직장을 목표로 편안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생산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10~20년 이상의 오래된 근무경험에서 축적된 노련한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최우수 농약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농약을 위해성 문제로 이슈화하기도 합니다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30년 이상을 생산직 사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 하신분도 여전히 타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회사의 좋은 분위기와 여건은 자연을 소중하게, 농촌을 풍요롭게 실현하기 위한 성보화학의 무한한 잠재력입니다. 기업의 이윤을 앞세우기보다 농업인이 믿고 신뢰하는 제품을 공급하고 한번 사용하고 나면 다시 구매하는 신뢰성과 친근감을 주는 회사로 기억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요 생산약제와 최근 다품종 소량생산체제가 주는 어려움을 소개해 주신다면?

최근까지 수도용제초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제초제들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도의 일·다년생 제초제인 내노내 외 7종, 다년생잡초용인 안노처 외 31종, 일년생잡초용 사단 외 1종과 경영처리용인 밭사그란 외 2종이 생산되어 제품 간의 차별화된 영업정책을 통해 성공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년에는 원예용 살균제인 리도밀을 비롯한 여러 합제들인 해비치, 카스텔란, 아그리마이신, 쿠무러스 등이 판매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보화학을 있게 해준 종합살충제인 다이아톤도 여전히 농업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올해 주요 계획 및 실적은?

효과적인 생산을 위하여 수화제, 입제 혼합기의 증설 및 대대적 보수와 우수한 물리성을 지닌 입제로 개선하기 위하여 생산시설의 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제적인 생산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생산예정인 수도용 약제 ‘한소내 입제’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서둘러 없으면서 친환경적인 농약 및 제제, 제형을 연구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